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분양문의 잇따라

산업시설용지 3.3㎡당 79만9천 원으로 인근보다 저렴 교통물류 최적 장소 꼽혀...3개 기업체 입주의사 밝혀

광양의 국가산업단지인 명당3지구가 입주자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국가산업단지인 명당3지구가 지난 16일부터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곳의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기업들의 분양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분양 공고 후 3개 업체에서 산업용지 6필지(5만2천㎡)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왔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여러 기업체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원시설용지·상업시설용지 분양 문의가 쇄도하

고 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마지막 개발지역인 명당3 지구는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 43만7천998㎡의 부지 규모로 개발 중이다.

해당 부지는 국도 2호선과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가 10분 거리에 위치한 교통물류의 최적 장소로 꼽힌다.

특히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의 경우 3.3㎡당 79만9천 원에 공급해 인근 부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배알도 수변공원과 수변공원~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가 있는 등 휴식과 생산이 어우러진 최적의 산



광양의 국가산업단지인 명당3지구

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분양대상 용지는 총 69필지 27만4천367㎡다.

산업시설용지 25필지, 지원시설용지 39필지, 상업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 등이다.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에서 입주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입주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이 이뤄진다.

지원·상업·주차장용지 분양은 오는 11월 1일까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양에 관한 자격요격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광양시청 산단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당3 지구는 국도 2호선과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가 10분 거리에 위치한 배알도 수변공원 등이 있어 업체들이 기업활동을 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된다”며 “광양국가산단내 마지막 개발지역인 만큼 보다 많은 업체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이승찬기자 lsc6100@hmail.net

섬진강둘레길 걸으며 힐링 28일 가을 걷기여행 축제



곡성군(군수유근기·사진)이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2018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 축제-곡성섬진강둘레길 걷기'가 오는 28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침곡역에서 가정역까지 섬진강 자락을 따라 숲길과 강변길이 어우러진 곡성 섬진강둘레길 왕복 10.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쾌적하고 아늑한 숲길, 섬진강의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하는 강변길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또한 침곡역의 섬진강레일바이크와 가정역의 섬진강출렁다리라는 걷기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걷기 행사 후 기차마을전통시장, 떡방마کت, 섬진강기차마을, 침실습지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코스도 마련돼 있다.

곡성=김성주기자 injony@naver.com

영예의 명창부 대통령상에 어연경씨

제21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폐막...명고부 대상 양인승씨

서편제 보성소리와 판소리의 명맥을 계승·발전시키고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 '제21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판소리의 본고장 보성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의 백미인 전국판소리·고수 경연대회에는 판소리의 본고장답게 전국 각지에서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최고의 대상인 대통령상은 어연경(38·여)씨가 수상했다.

어씨는 트로피와 시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는 고수 경연대회 명고부 대상은 양인승(21)씨가 차지했다.

조상현 명예대회장은 “앞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소리를 물려주는 데에 전념하겠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성소리를 전수받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서편제 보성소리의 본향으로 보성을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성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늘날의 보성소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편제 보성소리의 거장 조상현 국장이 명예대회장을 맡은 이번 축제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현진) 주관으로 다채체육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판



제21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보성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열렸다.

소리 성지 등에서 열렸다.

군민, 관광객, 판소리 성지 순례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서울 송파구 자매결연 단체 회원 등 10만 여 명의 관광객이 보성소리 축제에서 전통 문화와 판소리를 즐겼다.

축제는 서편제의 비조인 박유전과 정응민을 비롯한 보성소리를 빛낸 6인의 명창 합동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정동극장 뮤지컬 ‘판’, KBS 특집 명창대전, 뉴욕국악협회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마지막 날에는 경연대회 본선과 줄타기 공연, 두드러라 맥베스 타악공연, 역대 대상 수상자 초청 공연 등으로 채워졌다.

또한, 판소리 한 대목 배우기, 전통놀이 체험, 전통악기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체험, 짚풀 공예 등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체험행사와 부대행사로 보성역 외 7개 장소에서 열리는 소리 버스킹 공연과 유아 사물놀이, 청소년 밴드 및 댄스공연, 산양 창극 등 흥겨운 소리마당도 풍성하게 마련돼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됐다.

보성=정종만기자 jzmant@hmail.net

화순백신산업특구, 최우수지역특구 선정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기여 높이 평가

화순백신산업특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돼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게 됐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96개 특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7년도 추진전략과 실적·성과 등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심사, 외부전문가의 합동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백신 관련 전주기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이를 강화 및 보강하는 백신시료 생산 시설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으로 총 사업비 836억원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다.

군은 생물의약품연구원, KTR 헬스케어연구소, 녹십자 백신공장 운영과 함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운영 등으로 생물의약품 기업유

치, 고용증가, 특구 내 관련기관의 특허 출원 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의약품 연구개발(R&D), 비임상(GLP), 임상(GCP), 의약품 제조(GMP)에 이르는 백신 관련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된 전국 유일한 지역이다”며 “바이오 클러스터(생물의약품산업단지)와 메디컬 클러스터(화순전남대병원)를 두 축으로 작지만 강한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브랜드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최정민기자 chlaudtis@hmail.net



화순백신산업특구



웰빙 건강식품 인기 고흥 석류 수매 한창

요즘 고흥에서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명품 석류수매가 한창이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석류수매는 다음 달까지 한달동안 고흥석류친환경농조합공장에서 진행된다.

석류는 예로부터 여성들의 몸에 좋은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돼 피부노화 예방에 좋고 남성들 또한 전립선암 예방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흥은 연중 풍부한 일조량과 온화한 기온으로 석류 재배 안전지로 손꼽힌다.

고흥에서 생산되는 석류는 국내 다른 지역 및 이란산과 비교해 과피의 에스트로젠 및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과실이 크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다.

현재 고흥군 석류 재배면적은 153ha로, 올해 석류 생산량은 3천470톤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수확한 석류 생과는 고흥석류친환경농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생과 구매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흥석류친환경농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백용주기자 dydw8199@hmail.net

아트 plus
198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46년
제124호 2018. 10. 17.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5주년

무등산이 올해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5주년을 맞는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일 오후 3시30분 무등산 중심지구 전지광장 일원에서 국립공원 지정 5주년 기념 '무등산 숲 속 문화콘서트'를 연다. 이날 행사는 국립공원 가을 주간과 단풍 성수기를 맞아 음악포크콘서트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한편 무등산의 가을 첫 단풍은 오는 20일 시작될 전망이다.

98997471@hmail.net

“이제 카드 하나로 마음 놓고 여행 즐기세요”

광주·전남 통합 관광 할인카드 '남도패스' 발매

광주·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과 교통, 관광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남도패스'가 발행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0월 중순부터 광주·전남 통합 관광 할인카드인 '남도패스' 카드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나주 금성관·강진 고려청자박물관 가을 관광지 선정

전남도가 10월 역사·문화와 함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로 나주 금성관과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을 선정·발표했다. 이중 나주목의 중심이었던 금성관은 조선시대 객사(관청 건물)로서 고을 수령과 관리들이 모여 충성을 바치던 곳이다.

인·터·뷰 유순미 미국 매사추세츠 예술대 교수

미국 매사추세츠 예술대 유순미 교수의 에세이 다큐멘터리 '북녘에서 온 노래'가 지난 2014년 선을 보이자 이듬해 로카노 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언론들의 취재가 잇따랐다. 작품에 관한 이야기와 사연을 들었다.

도시樂 야경 보러다니기 딱 좋은 명소 1번지

어둠이 깔린 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다. 지친 일상을 위로받는 또 다른 하루를 반추하기 좋은 광주의 아름다운 야경 명소 3곳을 엄선해 소개한다.

유순미 미국 매사추세츠 예술대 교수

www.mdart.co.kr

구독료(1부) 2,000원 ■ 1년 정기구독료 50,000원 ■ 구독문의 062-606-7776 ■ 기사제보 062-606-7737 ■ 광고문의 062-606-7722